

北響堂石窟 北洞의 轉輪聖王 상징

소현숙*

- I. 서론
- II. 북향당석굴 북동의 조영자 文宣帝
- III. 북향당석굴 북동의 전륜성왕 상징—塔形窟
- IV. 탑형굴의 鄴城 조영 배경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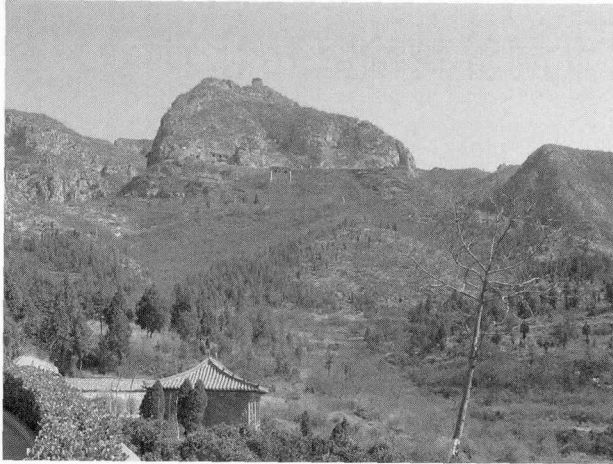
I. 서론

響堂石窟¹ 중국 河北省 邯鄲市 峰峰礦區의 鼓山 일대에 위치한 일군의 복제 석굴사원으로서 北響堂, 南響堂, 그리고 小響堂이라 불리는 水浴寺 西窟을 포함한다.² 그 가운데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¹ 현재 널리 쓰이는 용어는 '향당석굴'이 아니라 '향당산석굴'이다. 그러나 이 석굴군은 향당산에 개착된 것이 아니며 고산에 개착됐기 때문에 향당석굴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되어 본고는 향당석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명칭에 대해서는 劉東光, 「響堂山拾遺」, 『文物春秋』 1999年 第3期, pp.14-31; 劉東光 著, 勝木言一郎 譯, 「響堂山石窟に關するいくつかの問題について」, 『佛教藝術』 230(2000), pp.37-55를 참조.

²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향당석굴의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다. 水野清一·長廣敏雄, 『響堂山石窟』(京都: 東方文化學院 京都研究所, 1937); 邯鄲市文物保管所·峰峰礦區文物保管所, 「河北邯鄲鼓山常樂寺遺址清理簡報」, 『文物』 1982年 第10期, pp.26-43; 田村節子, 「響堂山石窟の現狀」, 『佛教藝術』 153(1984), pp.35-55; 邯鄲市文物保管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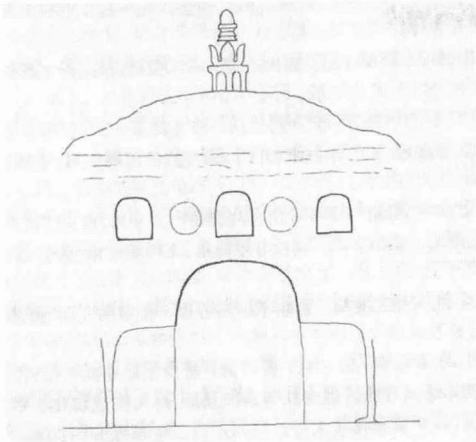
도 1 북향당석굴 외관(필자 촬영)

고산 서쪽의 산중턱에 위치한 북향당석굴이 가장 이른 시기에 개착됐는데, 이 곳에는 북동, 중동, 남동 등 3개의 대형굴이 있다^{도1}. 이는 모두 북제 왕조를 연 文宣帝가 조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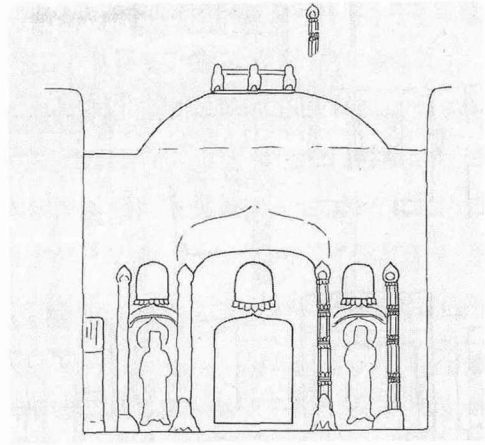
남향당석굴은 북향당석굴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고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上下 양 층에 각각 2개와 5개, 모두 7개의 석굴이 있다. 수옥사 서굴은 고산의 동쪽, 북향당석굴과는 산을 사이에 두고 있다. 남향당석굴의 조영에는 북제의 高官이, 수옥사 서굴의 조영에는 고위직 승려가 참여하고 있다. 즉 이 석굴들은 모두 북제 도성인 鄴城 지역에 개착되었고, 또한 석굴 조영에 황실, 고관 및 고위직 승려가 참여함으로써 북제의 중앙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향당석굴에는 중국의 기타 석굴사원에는 없는 조형적 특징이 출현한다. 즉 석굴 외관이 탑형을 띠는 이른바 탑형굴이다. 방형의 석굴 외관 상부에 몇 줄의 기와를 가로로 새겨 처마를 만든 후, 그 위에는 북발형의 지붕을 표현하였으며 북발 위에는 탑찰을 새겨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 외관이 북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의 모습을 조형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탑형굴은 개착연대가 가장 이른 북향당석굴 북동도2을 시작으로 중동도3, 남동도4, 남향당석굴의 제3굴과 제7굴도5, 그리고 수옥사 서굴 등 무려 6개나 돼 이 지역에서 탑형굴이 널리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³ 그런데 탑형굴의 조영은 조영연대가 가장 빠른 북향당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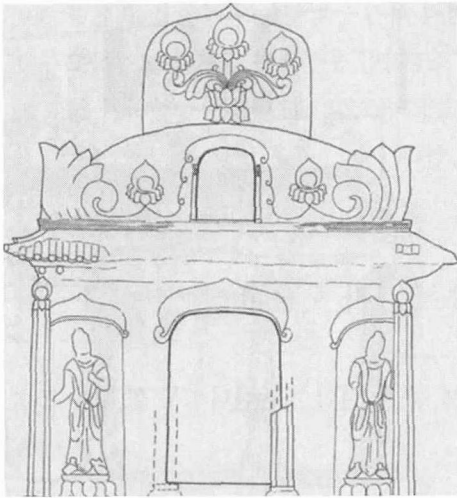
「邯鄲鼓山水浴寺石窟調查報告」, 『文物』 1987年 第4期, pp.1-23; 邯鄲市峰峰礦區文管所·北京大學考古實習隊, 「南響堂石窟新發現窟檐遺跡及龕像」, 『文物』 1992年 第5期, pp.1-15; 孟繁興, 「南響堂石窟清理記」, 『文物』 1992年 第5期, pp.16-18; 鐘曉青, 「響堂山石窟建築略析」, 『文物』 1992年 第5期, pp.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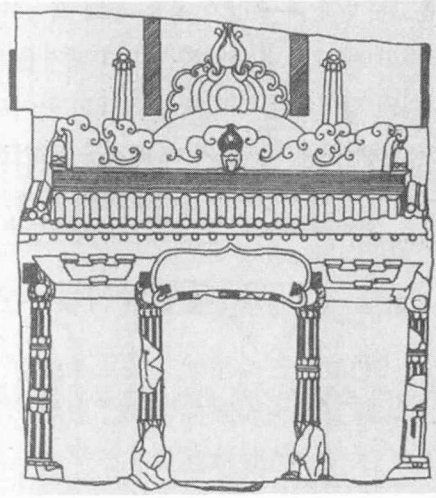
도 2 북향당석굴 북동 외관
(李裕群, 『北朝晚期石窟史研究』, p.12의 도2)



도 3 북향당석굴 중동 외관
(李裕群, 『北朝晚期石窟史研究』, p.13의 도3)



도 4 북향당석굴 남동 외관
(李裕群, 『北朝晚期石窟史研究』, p.16의 도7)



도 5 남향당석굴 제7굴 외관
(李裕群, 『北朝晚期石窟史研究』, p.15의 도6)

3 향당석굴에는 탑형굴 이외에 기타 중국 석굴사원에서는 출현하지 않는 조형적 특징이 또 하나 있다. 다른 아난 탑형굴 외부 북발 지붕 옆, 주두 위에 화염보주를 얹은 단독 기둥, 즉 珠柱를 표현한 것이다. 주주는 북향당석굴 중동에서 처음 나타나며, 이후 남향당석굴 제7굴에서 다시 출현한다. 주주의 명칭 및 출현 시기, 그리고 주주의 종교적·정치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蘇鉉淑, 『響堂石窟火焰寶珠紋研究—以柱頭上的火焰寶珠紋爲中心』, 『藝術與科學』 卷5(北京: 清華大學, 2007), pp.24-38; 소현숙, 『響堂山石窟 寶珠文 研究—珠柱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4(2006), pp.7-36을 참조.

굴 북동(이후 북동으로 약칭)에서 시작, 이후 업성 지역의 다른 석굴에 영향을 준 것이다.

북동은 북제 초대 황제인 문선제가 조영한 황실 석굴사원으로서 규모의 거대함, 조각의 정교함 등에서 업성 지역의 다른 석굴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전체 굴의 외부 높이가 20m, 너비 20m, 굴 안의 너비 11.5m, 깊이 12m, 높이 11.5m의 대형 굴로서, 석굴 내부의 장식문양 또한 아주 화려하여 석굴 삼면에 화려한 보주를 내뿜는 16개의 방형 단층 塔形龕을 부조했으며,⁴ 中心柱 아래 네 모서리에 怪獸를 조각하였다. 이와 같은 규모의 방대함과 화려한 장식 등으로 미루어 북동이 황실의 기념비적 건조물로서 조영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선제는 왜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석굴을 업성의 고산에 조영한 것일까. 『隋書』 「百官志」에 의하면 북제에는 太府寺 甄官署 아래 石窟寺가 설치되어,⁵ 황실의 석굴 조영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했다. 그러므로 북동은 일정한 조영 목적과 관리의 엄격한 감독 아래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는 문헌과 조상기 등을 통해 북동의 조형적 특징—탑형굴이 무엇을 표현한 것이며, 그리고 왜 그렇게 조영했는지 그 배경을 석굴 조영자인 문선제와 관련해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탑형굴이 북제 황실 高氏의 근거지인 太原의 天龍山石窟에는 출현하지 않고 왜 업성지역에서만 출현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북향당석굴 북동의 조영자 文宣帝

북동의 조영 시기에 관해서는 동위설과 북제설 등 두 설이 병존한다.⁶ 두 설 모두 조상

⁴ 북향당석굴 북동의 좌우 벽과 전후 벽에 새겨진 탑형감은 모두 16개이다. 그러나 水野清一과 長廣敏雄가 『響堂山石窟』에서 북동 탑형감을 14개로 잘못 수록한 후 세계 미술사학계가 대부분 이를 따랐다. 그러나 북동에는 左壁과 右壁에 각각 6개, 좌우 前壁에 각각 1개, 좌우 後壁에 각각 1개씩 모두 16개의 탑형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평면도는 李裕群, 『北朝晚期石窟史研究』(北京: 文物出版社, 2003), p.12의 도2가 정확하다.

⁵ 『唐』魏徵 等撰, 『隋書』 卷27(北京: 中華書局, 1973), p.757. 이후 본문에서 인용하는 중국 24사는 모두 中華書局 출판이므로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⁶ 李裕群, 張惠明 등이 동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Soper, Guglielminotti Trivel, 丁明夷, 李文生, 劉東光, 曾布川寬, 岡田健 등은 북제 조영설을 주장하고 있다. 향당석굴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Alexander C. Soper, "Imperial Cave Chapels of the Northern Dynasties: Donors, Beneficiaries, Dates," *Artibus Asiae*, Vol. 28, No.4(1966), pp.241-270; 李文生, 「響堂山石窟造像的特徵」, 『中原文物』 1984年 第1期, pp.30-34; 岡田健, 「北齊

양식과 문헌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식으로 조영연대를 판단할 경우 북동의 조상 양식과 형식이 모두 과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지만, 이것이 동위 양식인지 아니면 북제 양식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게다가 문헌 또한 북동의 조영 시기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전하고 있다.

북향당석굴의 조영을 언급한 가장 이른 기록은 道宣이 唐 麟德 2년(665)에 완성한 『續高僧傳』이다. 『續高僧傳』에는 향당석굴을 언급한 대목이 적지 않는데, 「明芬傳」에 「磁州 석굴사는 문선제가 건립했다. 大窟像 뒤에는 문선제의 능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⁷ 자주 석굴사란 북향당석굴을 지칭한다.

한편 「僧稠傳」에는 “문선제가 天保3년(552) 승주로 하여금 석굴대사의 사주를 겸하게 했다”고 적어 조영 시기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⁸ 여기서 ‘석굴대사’란 향당석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북동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552년에는 북동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문선제는 승주에게 깊이 귀의해 그에게 보살계를 받고 국고의 반을 삼보에 충당케 하였으며,⁹ 궁중의 재화를 그가 있던 운문사의 건립과 유지에 남김 없이 쏟아 넣었다.¹⁰ 바로 이런 승주를 석굴대사 사주를 겸하게 한 것으로 미

樣式の成立とその特質, 『佛敎藝術』 159(1985), pp.31-48; 丁明夷, 「北朝佛敎史的重要補正—析安陽三處石窟的造像題材」, 『文物』 1988年 第4期, pp.15-20; 丁明夷, 「鞏縣天龍響堂安陽數處石窟寺」, 『中國美術全集』 雕塑編 13 鞏縣天龍響堂安陽石窟雕刻(北京: 文物出版社, 1989), pp.26-51; 張惠明, 「響堂山和駝山石窟造像風格的過渡特徵」, 『敦煌研究』 1989年 第2期, pp.35-50; 張惠明, 「響堂山和駝山石窟造像風格的過渡特徵(續)」, 『敦煌研究』 1989年 第3期, pp.21-31; 曾布川寬, 「響堂山石窟考」, 『東方學報』 62(京都: 京都大, 1990), pp.165-207; 顏娟英, 「河北南響堂石窟寺初探」, 『考古與歷史文化—慶祝高去尋先生八十大壽論文集(下)』(臺北: 正中書局, 1991), pp.331-362; 鄭禮京, 「北響堂山石窟における裸體形菩薩像の源流について」, 『研究紀要』(京都: 京都大, 1993), pp.41-66; 劉東光, 「響堂山石窟的鑿建年代及分期」, 『華夏考古』 1994年 第2期, pp.97-108; 柴俊林, 「試論響堂石窟的初創年代」, 『考古』 1996年 第6期, pp.73-77; Angela F. Howard, “Buddhist Cave Sculpture of the Northern Qi Dynasty: Shaping a New Style, Formulating New Iconographies,” *Archives of Asian Art*, XLIX(1996), pp.7-25; 劉東光, 「響堂石窟造像題材」, 『文物春秋』 1997年 第2期, pp.27-36, 47; 劉東光, 「試論北響堂石窟的鑿建年代及性質」, 『世界宗教研究』 1997年 第4期, pp.67-76; 顏娟英, 「北齊禪觀窟的圖像考—從小南海石窟到響堂山石窟」, 『東方學報』 70(京都: 京都大, 1998), pp.375-440; M. Guglielminotti Trivel, “The ‘Gao Huan Cave Tomb’. Iconographic and Architectural Peculiarities of the North Cave at Northern Xiangtangshan,” *Annali*, Vol. 58(Napoli, 1998), pp.50-86; 劉東光 著 · 勝木言一郎 譯, 앞의 논문, pp.37-55; 王振國, 「關於邯鄲水浴寺石窟的幾個問題」, 『中原文物』 2002年 第2期, pp.65-73; 李裕群, 앞의 책, pp.211-261.

7 “仁壽下敕 令置塔於慈州之石窟寺 寺即齊文宣之所立也 大窟像背文宣陵藏中諸雕刻駭動人鬼。” 『續高僧傳』 卷26, 『大正新修大藏經』 50冊, No.2060, p.669下(이하 『大正新修大藏經』은 T로 표기하며 ‘冊’은 생략한다).

8 “天保三年下敕於鄴城西南八十里龍山之陽 爲構精舍 名雲門寺 請以居之 兼爲石窟大寺主 兩任綱位。” 『續高僧傳』 卷16, T50, No.2060, p.554中.

9 『續高僧傳』 卷16, T50, No.2060, p.554中.

뒤 문선제에게 석굴사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산 중턱에 위치한 常樂寺에서 나온 金正隆 4년(1159)의 「常樂寺重修三世佛殿碑文」에도 북향당의 세 굴을 문선제가 조영했음을 전하고 있다.¹¹

그런데 『續高僧傳』보다 400년 정도 늦은, 북송 元豐 7년(1084) 완성된 『資治通鑑』에는 북동이 동위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싣고 있다.

제 현무왕을 漳水의 서쪽에 거짓으로 묻고, 몰래 成安의 고산석굴 佛寺의 옆에 구멍을 파, 운구를 넣고 구멍을 막았다. 아울러 (이에 참여한) 장인들을 죽였다. 제가 멸망하자, 그 가운데 한 장인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돌을 빼고 금을 훔쳐 도망쳤다.¹²

현무황제는 문선제의 아버지 高歡으로 동위의 실질적 지배자였는데, 동위 武定 5년(547)에 사망했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의 기록대로라면 북동은 547년 이전에 이미 완공돼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위는 업성 천도 후 내란이 빈번했고, 549년까지 西魏와 거의 매년 격심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¹³ 게다가 천도 후에는 업성의 개발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고산에 대형 석굴을 조영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고향은 이른바 훈기로 불리는 무인세력들과 연합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정치 정세 아래에서 북동 같은 대형 석굴을 조영했을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북향당석굴의 동위 조영설은 저술연대가 아주 늦은 『資治通鑑』에서 처음 출현하며, 또한 이 기사의 출전을 신지 않아 그 근거가 분명치 않다. 반면 『續高僧傳』의 저자 도선(596-669)은 문선제에 의해 석굴대사 사주에 임명된 승주의 3傳제자로서, 貞觀 9년(635) 바로 이 고산석굴(북향당석굴)을 직접 답사했다.¹⁴ 그러므로 그의 기록이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할

¹⁰ “高齊河北獨盛僧稠·致令宣帝擔負傾府藏於雲門。” 『續高僧傳』 卷20, T50, No.2060, p.596中下.

¹¹ “(碑文又云)文宣常自鄴詣晉陽 往來山下 故起離宮以備巡幸 於此山腹見數百聖僧行道 遂開三石室 刻諸尊儀 因建此寺 初名石窟 後主天統間改智力 宋嘉祐中復更爲常樂。” [清]畢沅 輯, 『中州金石記』 卷5, 『石刻史料新編』 第1輯 18(臺北: 新文豐出版社, 1978), p.13803.

¹² “虛葬齊獻武王於漳水之西 潛鑿成安鼓山石窟佛寺之旁爲穴 納其柩而塞之 殺其群臣 及齊之亡也 一匠之子知之 發石取金而逃。” 『資治通鑑』 卷160, 「梁記16·武帝太清元年(547)」(北京: 中華書局, 1956), p.4957.

¹³ 王仲榮, 『魏晉南北朝史』 下冊(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pp.589-593.

¹⁴ 도선은 貞觀9년 沁州 綿上縣(山西 沁原縣 북방)을 출발해 업현 서남쪽에 위치한, 승주가 머물렀던 운문사지와 고산석굴, 혹은 업현 日光寺에 머물던 율학의 석학 法礪를 방문하는 여행을 시작, 그 왕복과정에서 太行山脈을 끼고 서쪽의 노주(산서성 長治) 法住寺에 머물던 영유의 제자 曇榮이나 율승 法瓚을 만나고, 또한 임려산 흥곡

수 있다.¹⁵

북향당석굴은 북제 후기로 접어들면 쇠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續高僧傳』 「圓通傳」에 의하면 武平 5년(574)에 이르면 향당석굴에 오가는 승려가 적어 특별히 영을 내려 여러 관사의 승려들을 교대로 머물게 했다고 한다.¹⁶

석굴의 쇠락은 북제 황실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선제 사후 그의 어린 아들 高殷이 황위를 계승했으나(廢帝, 559-560재위), 재위 1년 만에 작은 아버지 孝昭帝와 武成帝에게 피살당한다. 이후 북향당석굴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資治通鑑』의 기록대로 여기에 고환을 몰래 매장했다면 석굴사의 쇠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환은 효소제와 무성제의 부친이었고, 그들의 집권에 어머니이며 고환의 부인이었던 婁太后的 도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황제가 부친의 능묘를 소홀히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효소제와 무성제가 문선제 아들인 폐제를 폐위하고 뒤이어 그를 죽인 것은 곧 문선제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할 것이다. 북제 문인 顏之推(531-591)는 『冤魂志』에서 효소제가 폐제를 죽인 후 요괴로 변한 문선제를 여러 번 보았으며 끝내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적고 있으며,¹⁷ 『北史』와 『北齊書』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¹⁸ 그들이 문선제와 관련된 석굴사를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제 후기에 북향당석굴이 쇠락한 것은 문선제가 이 석굴을 개착한 조영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에 가서 사분율의 先達인 僧達의 유지를 배알했다고 한다. 大內文雄, 「寶山靈泉寺塔銘の研究—隋唐時代の寶山靈泉寺」, 『東方學報』 69(京都: 京都大, 1997), p.298. 한편 『續高僧傳』 卷25, 「圓通傳」 附記에도 도선 자신이 고산에 직접 왔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T50, No.2060, p.648下.

¹⁵ 한편 『續高僧傳』 「道豐傳」에도 북향당석굴을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역시 문선제와 관련된 고사를 싣고 있다. T50, No.2060, p.647中下. 이 글에서 언급된 '齊高'는 문선제를 지칭하는데, 그는 후술하듯 天保초년에 斷肉禁酒술을 내린 바 있어, 이 고사에서 도풍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¹⁶ “至明年(武平 5년)夏 以石窟山寺僧往者希 遂減莊嚴定國興聖總持等官寺百餘僧爲一番 通時爾夏預居石窟.” T50, No.2060, p.648上.

¹⁷ 羅國威, 『『冤魂志』校注』(成都: 巴蜀書社, 2001), pp.101-102. 宋代 李昉 등이 편찬한 『太平廣記』 卷120(北京: 中華書局, 2003년 7판), p.846에도 동일한 내용이 인용돼 있다.

¹⁸ 『北史』 卷7, p.266; 『北齊書』 卷5, p.76.

III. 북향당석굴 북동의 전륜성왕 상징－塔形窟

1. 탑형굴의 含意

상술했듯이 북동은 북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형의 석굴이다. 탑형굴의 조영에 대해 曾布川寬과 안젤라 하워드(Angela F. Howard) 등은 사리탑이 불법의 연속을 상징하며, 또한 호법의 작용을 하므로 말법 시대에 처한 복제인들이 탑형굴을 개작했다고, 그 배경을 종교적 각도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조영자의 신분, 그리고 석굴 조영의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론으로 보인다.¹⁹

한편 캐서린 장(Katherine R. Tsiang)은 靑州 龍興寺址 출토 조상에서 많이 출현하는, 주형 광배 상단에 위치한 보탑 분석을 토대로 이와 같은 탑형굴이 阿育王 舍利塔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것이 북제 황실의 전륜성왕 통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²⁰

그의 결론에 대해 필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논증 과정이 막연한 정황증거에 의존한 바가 크다. 이에 필자는 남북조시대의 문헌과 조상기 등을 분석, 광배 위의 단층 보탑이 다보탑과 아육왕탑, 특히 아육왕탑으로 숭배되었을 가능성이 컸음을 별고를 통해 논증한 바 있다.²¹ 아래에서는 탑형굴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찰하기 위해 먼저 탑형굴과 동일한 형상의, 북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의 의미를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간략히 서술한다.

탑은 불사리를 안치한 부처의 분묘로, 남북조시대 중국에서 불사리탑 숭배가 아주 유행했는데, 당시 부처 사리탑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다보불의 사리를 모신 다보탑과 석가모니의 사리탑이었다. 그리고 석가모니 사리탑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육왕이 세운 팔만 사천 탑이었다.²²

¹⁹ 曾布川寬, 앞의 논문, pp.184-204; Angela F. Howard, 「第3章 宗教雕塑(上)」, 『中國古代雕塑』(北京: 外文出版社, 2006), p.275. 한편 중국 학자들도 탑형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탑형굴의 형식 분석에 그친 감이 있으며, 깊이 있는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丁明夷, 「河北邯鄲響堂山的塔形窟」, 『文物天地』 1992年 第6期, pp.45-48; 趙立春, 「響堂山北齊塔形窟述論」, 『敦煌研究』 1993年 第2期, pp.37-45.

²⁰ Katherine R. Tsiang, "Miraculous Flying Stupas in Qingzhou Sculpture," *Orientalisms* (2000, 11), pp.45-53.

²¹ 蘇鉉淑, 「東魏北齊寶塔紋研究」, 『藝術史研究』 第8輯(廣州: 中山大, 2006), pp.323-363.

²² 梁 宣帝의 「迎舍利詩」에서는 불사리와 관련하여 석가와 다보를 거론하고 있으며(〔唐〕歐陽詢 撰, 『藝文類聚』 卷 76, 「內典上·內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년 新2版, p.1298), 隋 大業2년(606)의 「棲岩寺道場舍利塔碑



도 6 북향당석굴 남동 북발지붕 소감의 이불병좌상(필자 촬영)

다보탑 숭배는 남북조시대 범화신앙의 유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法華經』 「見寶塔品」條에 의해 석가·다보 二佛이 병좌한 탑을 다보탑으로 볼 수 있는데, 북향당 석굴 남동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남동 굴 밖 북발 부분에는龕이 하나 있고, 이 감의 정벽에 이불이 병좌하고 있어 다보탑임을 알 수 있다도6. 그러나 북동은 中心柱窟로서 이불이 병좌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아 다보탑이 아님이 분명하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한 아육왕탑 또한 남북조시대에 널리 숭배되었다. 동진 승려 法顯의 『法顯傳』, 북위 酈道元이 저술한 『水經注』, 북제 天保 5년(554) 魏收가 편찬한 『魏書』 등이 모두 인도의 아육왕탑을 거론하고 있다.²³ 게다가 남북조시대에는 아육왕이 세웠다는 팔만 사천 사리탑 가운데 일부가 중국에 있다는 고사가 널리 유포되어 『魏書』와 『高僧傳』에서 중국 내 아육왕탑사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남북조시대 불교 석조상의 명문에도 아육왕탑을 언급한 사례가 많다.²⁴ 또한 『廣弘明集』을 비롯하여 『集神州三寶感通錄』, 『法苑珠林』 등

文』 또한 당시 건립한 사리탑이 “마치 다보탑이 땅에서 솟은 듯하고, (阿)育王의 신령스런 변화와 같다”라고 찬미하고 있다. 韓理洲 輯校編年, 『全隋文補遺』(西安: 三秦出版社, 2004), p.45. 이런 경향은 당대에도 이어져 초당 사문 釋明樂도 「決對傳奕廢佛法僧事并表」에서 “듣자하니 범신은 형태가 없이도 사물에 응하며 사방에 있다. 그러므로 온 몸을 거깃으로 드러내 다보탑 안에 두었고, 임시방편으로 (사리를) 부쉬 나누어 아육왕감으로 전파시켰다”라고 하여(『廣弘明集』 卷12, T52, No.2103, p.170中), 남북조시대뿐 아니라 수당대에도 다보탑과 아육왕탑에 대한 숭배가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²³ T51, No.2085: [北魏]酈道元 注, 楊水敬 等疏, 『水經注疏』 卷1·2(蘇州: 江蘇古籍出版社, 1989); 『魏書』, 「釋老志」, p.3028.

²⁴ 필자는 중국 國家圖書館善本金石組가 편찬한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두 권과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9) 및 『石刻史料新編』(臺北: 新文豐出版社, 1978)의 남북조시대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조성된 석각 명문을 검토했는데, 아육왕탑에

당대 문헌에도 남북조시대 중국에서 출현한 아육왕탑 고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쉽게도 이들 문헌 가운데 아육왕탑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서진의 劉薩訶(劉慧達)가 예참한 會稽 鄞縣의 아육왕탑뿐이다. 이 탑은 양 무제가 직접 예참하기도 했는데, 이후 남조인들에게 널리 숭배되었다. 비록 시기가 좀 늦은 당 麟德원년(664)의 기록 이긴 하지만 도선은 『集神州三寶感通錄』에서 유혜달이 회계 무현에서 보았다는 아육왕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청색인데 돌인 듯하면서도 돌이 아니다. 높이는 1척 4촌, 사방 7촌으로 5층 노반이 있다. 서역의 우전에서 만든 것 같다. 면마다 창을 내고, 네 주위에는 방울을 달았다. 그 안에 銅磬을 달았는데 매번 종소리가 났다. 아마도 이 경의 소리일 것이다. 탑신 주위를 여러 불과 보살, 금강(역사), 그리고 승려 및 여러 잡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형상이 아주 세밀하다. 눈을 주시하여 보면 곧 온갖 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목구비와 수족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다.²⁵

이 글로 미뤄 당시 아육왕탑이 于闐 지역의 탑과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우전탑에 대해 『洛陽伽藍記』 「宋雲惠生使西域」條와 『魏書』 「于闐傳」은 “覆盆浮圖”라 기록하고 있다.²⁶ 그리고 和田 출토로 알려진, 7-8세기에 제작된 비사문천 그림 잔편 중 비사문천이 받들고 있는 소형탑도 복발탑이다²⁷. 이런 예들로 미루어 우전에는 복발탑이 건립돼 있었으며, 고대 중국인들 또한 우전탑은 복발탑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방 7촌”, “면마다 창을 냈는데 네 주위에 방울을 달았다”라는 위 기록으로 보아 유혜달이 보았다는 아육왕탑의 탑신은 방형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북제 武平3년(572) 「暈禪師等50人造像記」에도 아육왕탑이 ‘方塔’이었음을 서술하고 있고,²⁷ 낙양 근처 河陽에서 발견된 북제 「田市仁等作像龕記」에서도 방형 돌조각을 만들고 이것이 “마치 공중에 걸린 보탑과 같았다”라고 찬미하고 있어,²⁸ 당시 사람들에게 사리탑은 방형 탑신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아 당시 아육왕탑에 대한 숭배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²⁵ “靈塔相狀青色似石而非石 高一尺四寸 方七寸 五層露盤 似西域于闐所造 面開窗子四周天鈴 中懸銅磬每有鍾聲 疑此磬也 繞塔身上並是諸佛菩薩金剛聖僧雜類等像 狀極微細 瞬目注睛乃有百千像現 面目手足咸具備焉 斯可謂神功聖跡 非人智所及也.” T52, No.2106, p.404中下.

²⁶ [東魏]楊銜之撰, 周祖謨校釋, 『洛陽伽藍記校釋』(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0), p.188; 『魏書』卷102, p.2262.

²⁷ “蓋寂理無體藉應以辨眞 心中無應 故托物以成 昔育王踵聖 立方塔以表奇龍宮 暫辭刻香木以有形其淨行 比暈丘禪師 率領邑義四部五十人等 乃殖良緣 廣修寶業 敬造阿彌陀玉像一區……” 『北京圖書館藏中國歷代石刻拓本匯編』8冊(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9), p.43.



도 7 和田 출토 잔편 중에 묘사된 복발탑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 第15卷 中央アジア,
 [東京:小學館, 1999], p.280의 삽도196)



도 8 북제 道憑法師 묘탑(필자 촬영)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제시대에는 복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이 승려의 사리탑으로서 만들어졌다. 河淸 2년(563)에 세워진 道憑法師 묘탑이 현재 安陽 寶山 靈泉寺에 두기 전하는데 모두 복발형 지붕의 방형 단층탑이다^{도8}. 나아가 總章 원년(668) 완성된 『法苑珠林』 卷37 「經塔篇」에서 탑을 ‘方墳’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한다.²⁹

이런 예들을 종합하면 남북조시대에 예배되었던 아육왕탑은 복발 지붕을 가진 단층 방형탑일 가능성이 크며, 이와 동일한 외관을 하고 있는 북동은 바로 아육왕탑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高僧傳』 『慧達傳』과 『魏書』 『釋老志』 등 남북조시대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는 丹陽, 會稽, 洛陽, 彭城, 姑臧, 臨淄 등 6곳에 阿育王塔寺가 있었다.³⁰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숭배된 것

²⁸ “...邑主田市仁□等...建方石一區 作妙像八龕...似寶塔空懸.” 이 둘은 당시 이미 파손된 상태였는데, “높이 2척 9촌, 넓이 1척 3촌 4, 5분이다”라는 撰者의 해설로 보아 소형의 방형 조상비로 추정된다. [淸]端方 撰, 『甸齋臧石記』 卷13,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2(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p.399.

²⁹ “梵漢不同翻譯前後 致有多名文有訛正 所云塔者 或云塔婆 此云方墳 或云支提 翻爲滅惡生善處 或云斗藪波 此云護讚 若人讚歎擁護歎者 西梵正音名爲窣堵波 此土云廟 廟者貌也 卽是靈廟也.” T53, No.2122, p.580上.

³⁰ [梁]慧皎 撰, 『高僧傳』 卷12, T50, No.2059, pp.409中-410上; 『魏書』 卷114, p.3028. 그런데 양나라에서 편찬된

은 회계와 임치의 아육왕탑이었다.

훗날 梁 簡文帝가 되는 晋安王 蕭綱(503-551)의 「大法頌」에서 두 지역 탑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소강은 이 글에서 “(同泰寺의) 빛나는 금륜은 지하에 있던 임치의 것보다 묘하며, 층대의 뛰어남은 공중에서 날아온 宛委의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황실사찰 同泰寺의 탑을 찬미하고 있다.³¹ ‘지하에 있던 임치의 것’이란 佛圖澄이 임치의 옛 아육왕탑사지에 있던, 이미 매몰돼버린 아육왕탑의 상륜을 파내 업성의 탑 보수 당시 이용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으로,³² 임치의 아육왕탑을 의미한다.

宛委는 浙江省 紹興縣의 동남쪽에 위치한 會稽山의 支峰을 가리킨다.³³ 『集神州三寶感通錄』에는 『會稽記』를 인용해 무현의 진신사리탑을 아육왕과 여러 眞인들이 받들고 허공을 비행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고사를 싣고 있어,³⁴ 당시 회계의 아육왕탑이 공중을 날았다는 얘기가 널리 유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날아온 宛委의 것’이란 바로 회계 무현의 아육왕탑을 지칭할 것이다. 이처럼 양의 황실사찰인 동태사의 탑을 찬미하기 위해 무현과 임치의 아육왕탑을 거론한 것은, 이 두 탑이 당시에 가장 널리 숭배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술했듯이 회계 무현의 아육왕탑은 복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임치의 아육왕탑 또한 이와 동일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임치의 인근에 위치한 靑州 龍興寺址와 興國寺址, 그리고 臨朐 등에서 보탑문이 새겨진 남북조시대 후기의 조상이 20구 이상 발견됐는데, 여기에 표현된 보탑은 모두 복발형 지붕을 한 방형 단층탑이다.³⁵

『高僧傳』은 남조 중심적 사고가 두드러져 남조 승려를 중심으로 책이 편찬되었는데, 아육왕탑지와 관련해서도 丹陽, 會稽 등 남조 지역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북제 魏收에 의해 완성된 『魏書』는 洛陽, 彭城, 姑臧, 臨淄 등 북조의 아육왕탑사지만을 언급하고 있어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³¹ “金輪燭日 妙臨淄之地下 層臺駕鶴 邁宛委之空飛.” 『廣弘明集』 卷20, T52, No.2103, p.241上. 그는 또한 「謝敷資銅供造善覺寺塔露盤啓」에서 “...供造善覺寺塔露盤 是稱柎陽之珍 實亦昆吾之瑤 燥濕無變九布見奇 寒暑得宜六律成用 況復神龍負子光斯妙塔 金鳥銜帶飾茲高表 函谷恥其詠歌 臨淄惡其祥應...”라고 선각사 탑 노반의 훌륭함을 임치 탑의 노반과 비교하고 있다. 『廣弘明集』 卷16, T52, No.2103, p.209上. 한편 『藝文類聚』는 이 글을 昭明太子的 작품으로 보았으며, 또한 “臨淄惡其祥應”이라고 적었으나(『藝文類聚』, p.1323), 문맥상 “臨淄惡其祥應”이 합당하여 저자와 글귀 모두 『廣弘明集』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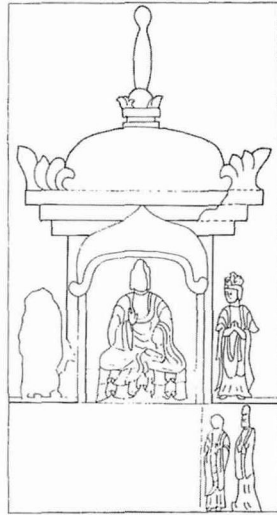
³² “虎於臨淄修治舊塔少露盤 澄曰臨淄城內有古阿育王塔 地中有承露盤及佛像 其上林木茂盛 可掘取之 卽畫圖與使 依言掘取 果得盤像.” 『高僧傳』 卷9, 「佛圖澄傳」, T50, No.2059, p.385中: “石趙時佛圖澄者在鄴 勒虎敬重廣置寺塔而少露盤 方欲作之 澄曰臨淄城中有阿余王寺 猶有佛像露盤在深林巨樹下 上有伏石 可尋而取也 虎使求之 依言指授 入地二十丈獲之 至鄴阿育聲之轉耳.” 『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上, T52, No.2106, p.406上.

³³ 『中國地名詞典』(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0), p.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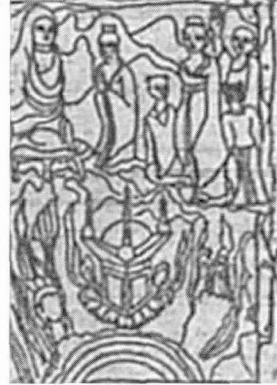
³⁴ T52, No.2106, p.405上.



도9 청주 용흥사지 출토
조상 광배 위 보탑
(필자 촬영)



도10 용문석굴 20호 부조탑
(楊超杰·嚴輝, 『龍門石窟雕刻粹編—佛塔』,
p.18의 도5)



도11 亳縣 咸平寺 출토
〈夏侯顯穆造像碑〉부분
(『文物』1980年 第9期,
p.56의 圖1)

남북조시대 아육왕탑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상술한 두 문헌에서 언급한 다른 지역의 단층탑 역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낙양의 용문석굴에는 4기의 북위시대 단층탑 부조가 남아 있는데 1기만 석가·다보 병좌의 복발탑이며, 나머지 3기는 모두 복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이다³⁶. 또한 북위 定光 연간 황실에 의해 조성된 嵩山 嵩岳寺塔의 제 1층 탑신에 새겨진 8개의 탑형감도 역시 형태가 동일하다. 팽성의 경우 현재까지 발견된 보탑 문은 없지만, 팽성 근처 安徽省 亳縣에서 발견된 북제 天保 10년(559) 〈夏侯顯穆造像碑〉 하단에 묘사된 탑이 바로 땅에서 막 솟아나고 있는 복발형 지붕의 방형 단층탑이다³⁷.

³⁵ 남북조시대 후기에는 조상의 광배 위에 보탑문을 장식하는 풍조가 아주 유행했는데, 이 보탑문은 형태 및 다른 문양과의 조합 등에서 지역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유물의 출토상황을 토대로 四川 지역, 定州를 중심으로 하는 河北 지역, 靑州를 중심으로 하는 山東 지역, 북제 수도 업성 지역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蘇鉉淑, 앞의 논문(2006), pp.324-339를 참조.

³⁶ 楊超杰·嚴輝, 『龍門石窟雕刻粹編—佛塔』(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1), pp.18-19, 圖5: 4·5·6·7.

³⁷ 安徽省 亳縣 咸平寺에서 여러 구의 북제시대 조상이 출토되었는데, 天保 10년 〈夏侯顯穆造像碑〉 가장 하단에



도 12 북제 업남성유지 출토 북제조상의 보탑문 (필자 촬영)

한편 임치의 아육왕탑 상륜은 佛圖澄에 의해 발굴돼 업성으로 옮겨져 고탑 수리에 이용된 적이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북제 업성 지역 보탑 또한 모두 북발형 지붕의 방형 단층탑이다. 업성 지역에는 6개의 탑형굴 이외에도 북동의 16개 塔形龕, 북동을 비롯한 석굴 중심주와 석굴 불상의 광배 상단에 표현된 보탑, 그리고 鄴南城 유지에서 발견된 백대리석제 조상 광배 상단의 보탑도¹² 등을 포함해 30여개의 보탑문이 현존하는데, 모두 동일한 형태다.³⁸ 이는 곧 도선이 『集神州三寶感通錄』에서 언급했듯이 ‘아육의 명성이 업성에 전해진’ 결과일 것이다.³⁹

지금까지 문헌과 유물의 분석을 통해 북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이 고대 중국에서 아육왕탑으로 숭배되었으며, 북동을 비롯한 향당지역 석굴의 탑형굴은 대부분 이를 조형화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문헌에는 왜

북발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이 땅에서 솟아나는 모습이 있다. 韓自強, 「安徽亳縣咸平寺發現北齊石刻造像碑」, 『文物』 1980年 第9期, p.56의 圖1. 金申은 조상비 상단에 묘사된 인물들을 분석, 이 탑을 유혜달이 봤다는 아육왕 사리탑으로 추정했다. 「安徽省 亳縣 咸平寺 出토 佛碑像의 내용과 造像 유파」, 『美術史論壇』 18(2004년, 상반기), pp.7-29. 그러나 이 도상은 謝振發의 추정대로 須大拏本生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北朝中原地區《須大拏本生圖》初探」, 『美術史研究集刊』 第6期(臺北, 1999), pp.27-28. 그런데 문제는 이 본생도 가장 하단에 표현된 ‘땅에서 솟아나는 보탑’의 정체이다. 須大拏本生을 기록한 唐代 이전의 번역 경전은 현재 『菩薩本緣經·一切持王子品』, 『六度集經·須大拏經』, 『太子須大拏經』 등 3종의 역본이 전하는데, 여기에 사리탑 용출의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 곳에 표현된 것이 須大拏本生이며 須大拏태자가 바로 석가모니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이 탑이 석가모니 사리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³⁸ 북향당석굴 북동 중심주 정벽의 상단, 수옥사 석굴 중심주 삼면의 상단, 그리고 승주가 머물렀던 소남해 석굴 中窟과 東窟 정벽 불상 광배의 상단, 남향당석굴 제5굴과 7굴의 문액, 鄴南城에서 발굴된 두 구의 백대리석제 조상의 광배 상단(河北省臨漳縣文物保管所, 「河北鄴南城附近出土北齊石造像」, 『文物』 1980年 第9期, pp.65-69), 그리고 북향당석굴 남동 위쪽에 위치한 天宮路에 새겨진 4개의 탑형굴 등으로 미뤄 북제시대 업성에서는 북발형 지붕을 가진 보탑문이 널리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蘇鉉淑, 앞의 논문(2006), pp.324-339를 참조.

³⁹ 주 32를 참조.

고산에 아육왕탑을 건립한 것일까. 그 배경을 구명하기 위해 남북조시대에 아육왕탑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아육왕탑 신앙의 유행 배경을 종교적·정치적 두 방면에서 고찰한다.

2. 탑형굴 조영의 배경

『續高僧傳』에는 남북조시대 아육왕탑상 신앙의 유행 배경을 시사하는 글이 있다.

석 혜달의 성은 유씨며, 이름은 살하이다. 병주 서하 이석인으로서 어려서 사냥을 좋아했다. 31살이 되어 갑자기 죽었다가 하루 만에 소생했다. 지옥에서 업보로 고통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한 도인을 만났는데, 도인이 이르기를 나는 전생의 네 스승으로서 너를 위해 설법하노니 출가하여 단양, 회계, 오군에 가서 阿育王塔像을 찾아 예배하고 잘못을 참회하면,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했다.⁴⁰

『集神州三寶感通錄』 또한 유사한 고사를 인용해 아육왕탑상을 예배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으며,⁴¹ 蕭綱의 「吳郡石像碑文」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⁴² 그러므로 당시에는 아육왕탑상을 예참하면 온갖 재액을 떨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념이 널리 유포되어 아육왕탑상에 대한 신앙이 고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아육왕탑상은 불교적 상서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교가 아주 융성했던 고대 중국에서는 불교적 상서가 통치자들의 왕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상서로 자주 이용되었다. 아육왕탑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북제 天保 8년(557) 「定國寺塔銘碑文」의 “황하 북쪽에 阿育王之龕이 홀연 출현하고, 총(령)의 동쪽에 따로 迦維國이 있다”라는 명문에서 보듯, 아육왕탑은 불국토를 상징하는 정치적 상서로 이용되었다.⁴³ 이는 인도 아육왕이 석가모니로부터 그 열반 100년 후에 전륜성왕으로서 인도를

⁴⁰ “釋慧達 姓劉 本名薩河 并州西河離石人 少好田獵 年三十一 忽如暫死 經日還蘇 備見地獄苦報 見一道人云 是其前世師 爲其說法訓誨 令出家往丹陽會稽吳郡 覓阿育王塔像 禮拜悔過以懺先罪。” T50, No.2059, p.409中.

⁴¹ “晉大康二年 有并州離石人劉薩何者 生在畋家 弋獵爲業 得病死 蘇見一梵僧語何曰 汝罪重 應入地獄 吾聞汝無識 且放 今洛下齊城丹陽會稽 並有古塔及浮江石像 悉阿育王所造 可勤求禮懺 得免此苦。” T52, No.2106, p.404中.

⁴² “外國沙門釋法開…云, 東方有二石像及阿育王塔, 若能恭往禮觀, 滅無量罪, 免離三塗。” [清]嚴可均輯, 『全梁文』上, 卷14(北京: 商務印書館, 1999), p.153. 『集神州三寶感通錄』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T52, No.2106, p.414上.

⁴³ [清]陸增祥撰, 『八瓊室金石補正』卷20, 『先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1(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통치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으며, 통치 기간 중에 석가모니 사리탑을 건립하고 불교를 보호한 法王, 즉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이란 점과 관계가 깊다.

西晉시대에 『阿育王傳』 5卷이 번역된 후 중국의 많은 통치자들은 아육왕의 통치 행적을 모방하며 전륜성왕으로 자처했는데, 양 무제, 수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선제보다 시기가 앞서는 양 무제는 天監 11년(512) 扶南國 승려 僧伽婆羅(460-524)가 『阿育王經』 열 권을 역출하던 첫 날, 법좌에 나아가 친히 필수를 할 정도로 아육왕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⁴⁴ 또한 아육왕상탑을 열렬히 예배하고 수리하거나 새로 건립했다.⁴⁵ 그리하여 당시 많은 상층 계급으로부터 전륜성왕으로 인식되었다.⁴⁶

문선제는 자신의 禪讓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의 역대 초대 황제들처럼 전 왕조의 사서를 편찬하기도 했는데,⁴⁷ 국고의 1/3을 불교에 충당케 했을 정도로 열렬한 숭불황제였던 그가 정통성 천명에 불교를 이용했을 것은 분명하다.⁴⁸ 특히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초대 황제일수록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줄 기념비적 건물 수립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북제의 초대 황제인 문선제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즉 문선제는 당시 가장 널리 숭배

p.196. 석가의 탄생지인 '迦維羅'도 불국토, 또는 정토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북주 무제와 道林의 문답으로 꾸며진 「修述鄴宮新殿廢佛詔對事」에서 무제는 자신이 천하를 다스림에 백성이 편안하고 국토가 태평해졌으므로 그의 땅이 바로 정토와 다를 바 없고, 또한 迦維에 뒤집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清]嚴可均 輯, 『全北齊文·全後周文』(北京: 商務印書館, 1999), p.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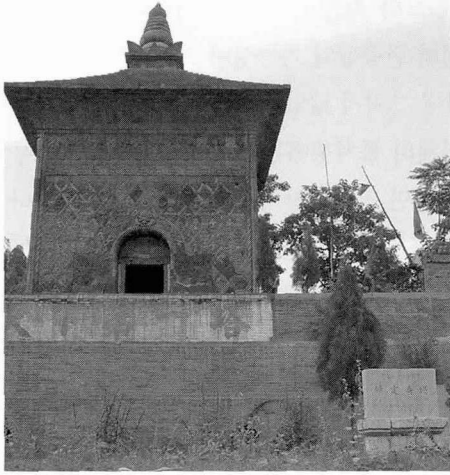
⁴⁴ 『歷代三寶紀』 卷11, T49, No.2034, p.98中.

⁴⁵ 양 무제는 中大通 4년(532) 荊州 長沙寺의 아육왕상을 수도에 맞아들였는데, 이 때 친히 나아가 맞았으며 이어 동태사에 안치했다. 『集神州三寶感通錄』 中, T52, No.2106, pp.415中-416上. 나아가 大同 2년(536)에는 회계 무현의 아육왕탑에서 사리를 꺼내 도성에 맞아 예배한 후 다시 현에 반환하고 새 탑을 세운 후 여기에 매납하게 했다. 大同 3년과 4년에는 장간사, 즉 아육왕사의 아육왕탑을 수리하거나 새로 건립했다. 『梁書』 卷54, pp.790-792; 『南史』 卷78, pp.1954-1956. 장간사에는 또한 아육왕의 4녀가 만들었다는 育王瑞像이 있었는데 양 무제는 이 상의 광배에 7명의 기악천과 두 보살을 보태었다. 『集神州三寶感通錄』 中, T52, No.2106, p.414中.

⁴⁶ 蕭綱의 「請幸同泰寺開講啓」, 「答湘東王書」, 「馬寶頌」, 「玄圃園講頌」, 「菩提樹頌」과 양 元帝의 「光宅寺大僧正法師碑」 등에서 무제를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있다. 이 글들은 『藝文類聚』, 『文苑英華』, 『廣弘明集』 등에 각각 분산 수록돼 있으나 청대 嚴可均이 편찬한 『全梁文』에 모두 수록돼 있다.

⁴⁷ 550년 5월 동위 효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문선제는 天保 3년(552) 위수에게 『魏書』 편찬을 명했다. 완성된 『魏書』에는 『高王觀世音經』 신앙이 처음으로 언급돼 있는데, 이는 문선제의 아버지 고헌의 덕을 찬양하는 일련의 작업이었다. 牧田諦亮의 연구에 의하면 『高王觀世音經』에 대한 첫 기록은 『魏書』 卷84의 「虛景裕傳」으로 위수는 고사의 주인공 노경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고헌은 노경유를 훗날 아들인 문선제의 스승으로 삼았다. 牧田諦亮, 『疑經研究』(東京: 臨川書店, 1976), p.281.

⁴⁸ 종교적 시대에 천명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종교적 상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塚本善隆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塚本善隆, 「陳的革命と佛牙」, 『東方學報』 19(京都: 京都大學, 1950), pp.1-22.



도 13 河南省 安陽 修定寺塔(필자 촬영)



도 14 天保 5년(554) 사리석함의 명문
(『安陽修定寺塔』, 도142)

되던 불교적 상서 아육왕탑 형식의 석굴을 개작함으로써, 아육왕탑이 자신의 국토에 출현했다고 알림과 동시에 자신이 아육왕처럼 석가모니 사리탑을 건립하는 불교적 이상군주임을 선포하고자 했을 것이다.⁴⁹

문선제는 河南省 安陽의 修定寺에도 석가모니 사리탑을 세웠다. 그는 수정사에 자주 행했었는데, 이 사찰은 북제 불교계를 이끌었던 昭玄大統 法上이 건립했다. 현재 이곳에는 법상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방형 탑신을 가진 단층의 수정사탑이 있고도¹³,⁵⁰ 이곳에서 동쪽으로 40m 지점에 또 하나의 白石 탑기가 있다. 1978년 이 탑기를 정리하던 중 탑기 아래서 북제 天保 5년(554)의 사리석함을 발견했는데, “釋迦牟尼佛舍利塔婆…天保五年歲次甲戌四

⁴⁹ 북향당석굴 북동의 탑형굴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굴이 황제의 능묘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다. 상술한 『續高僧傳』과 『資治通鑑』에서 보듯 북동(大窟)은 고환, 혹은 문선제의 능묘로 알려졌는데, 이는 곧 탑형굴이 황제의 능묘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술하듯이 북제 황실은 전륜성왕으로서 북제를 통치했는데, 『摩訶僧祇律』 卷27에는 사후에 탑을 세울 만한 사람으로서 如來, 聲聞, 辟支佛, 轉輪聖王 등 4종을 들고 있다. T22, No.1425, p.444中. 나아가 『釋迦譜』 卷4도 『大般涅槃經』을 인용해 전륜성왕의 葬法과 석가모니의 葬法이 동일하다고 한 후, 석가 사후 사리탑을 세울 것을 설명하고 있다. T50, No.2040, p.72下. 그러므로 전륜성왕으로 자처한 북제 황실도 석가모니의 사리탑 건립을 모방, 탑형굴을 능묘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⁵⁰ 현재의 수정사탑은 북제 탑의 기초 위에 당대에 재건축된 것이다. 李裕群, 『安陽修定寺塔叢考』, 『宿白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 下(北京: 文物出版社, 2002), pp.435-453.

月丙申八日癸亥，大齊皇帝供養”이라는 명문이 있어 문선제가 세운 석가사리탑임을 알 수 있다.⁵¹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탑기가 수정사탑보다 작은 크기여서, 이곳에 건립된 탑도 수정사탑과 마찬가지로 누각식 층탑이 아닌 방형의 단층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선제의 아육왕 모방은 석가모니 사리탑 건립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誡訪義純의 지적처럼, 보살계의 수계, 斷肉禁酒令 등에서 보듯 문선제의 통치행태는 아육왕을 모방한 양 무제를 모방한 흔적이 농후하다.⁵² 古正美의 연구에 의하면 전륜성왕의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는 보살계를 받는 것이다.⁵³ 북위 태무제 폐불 이후 북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偽經 『梵網經』은 보살계의 주요 소의경전으로서 특히 북조에서 유행했는데,⁵⁴ 卷2에 불제자가 국왕의 자리를 맡고자 할 때나 전륜왕의 자리를 맡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고 전륜성왕과 보살계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⁵⁵

당 開元 7년(719) 승려 玄昉이 세운 「大唐鄴縣修定寺傳記」에 문선제의 보살계 수계에 대한 기록이 있다.

魏의 책력이 이미 헐파되고 (문선)제에게 선위했다. 문선이 등극한 후 (법상)을 받들이 더욱

⁵¹ 河南省文物研究所·安陽地區文物管理委員會·安陽縣文物管理委員會 編, 『安陽修定寺塔』(北京: 文物出版社, 1983), 도 142·160. 현재 이 탑기는 흔적도 없으며, 보고서 또한 없다. 과거 수정사를 현지 조사했던 李裕群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연구원에 의하면 이 탑기는 현존하는 수정사탑의 규모보다 작다고 한다.

⁵² 誡訪義純은 문선제의 보살계 수계는 양 무제 天監 18년(519) 4월의 수계에, 斷肉禁酒는 무제의 단주와 단육에, 天保 8년 종묘에 혈식을 올리지 않는 것은 天監 16년 시작된 종묘에 채소를 올린 것에, 그리고 天保 10년의 禪居深觀은 大通 2년(528)에 시작된 동태사 捨身 등에 비기고 있다. 誡訪義純, 『中國中世佛教史研究』(東京: 大東出版社, 1988), p.244. 한편 그는 위와 같은 문선제의 양 무제 모방행위가 天保 6년(555)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는 『北史』와 『北齊書』 등을 토대로 한 추정이며, 뒤에서 살펴보듯 『續高僧傳』 및 당대 비문에는 그가 통치 초기부터 보살계 수계와 斷肉禁酒令 등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불교적 통치행위를 했음을 전하고 있다.

⁵³ 高正美는 보살계를 받는 것은 바로 '전륜성왕으로서 등극하는 의식'이라고 하여 보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古正美, 『從天王傳統到佛王傳統—中國中世佛教治國意識型態研究』(臺北: 商周出版, 2003), pp.167-168. 그러나 보살계와 전륜성왕의 관계가 밀접했음은 확실하지만 주57에서 보듯 황제들은 보살계를 여러 번 받았으므로 보살계 의식을 전륜성왕 등극 의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高正美는 또한 문선제가 전륜성왕으로서 복제를 통치했음을 논하였는데, 그의 논점은 주로 승주의 화엄사상에 의한 전륜성왕 통치전통과 那連提耶舍가 天保 8년(557) 『月燈三昧經』을 번역한 이후의 변화상을 언급하였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복제 초기의 북향당석굴에 대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靑州지역에서 출토된 노사나법계상을 전륜성왕이님이 조형적으로 표출된 경우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古正美, 앞의 책, pp.168-202.

⁵⁴ 湯用彤,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湯用彤全集』I(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0), p.616.

⁵⁵ “佛言 佛子欲受國王位時 受轉輪王位時 百官受位時 應先受菩薩戒 一切鬼神救護王身百官之身 諸佛歡喜.” T24, No.1484, p.1005上.

깊었다. (문선제는) 天保 원년(550) 8월에 이 산에 행행하여 법사를 뵈고 보살계를 받았으며, 머리를 땅에 풀어헤쳐 법사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를 대통으로 삼았다.⁵⁶

550년 5월에 선위한 문선제는 선위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8월에 복제 불교계의 핵심인물인 소현대통 법상을 수정사로 찾아가 보살계를 받고, 그에게 자신의 풀어헤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했던 것이다. 한편 문선제는 天保 2년(551) 승주로부터도 보살계를 받았다.⁵⁷

『梵網經』에 의하면 보살계를 받을 때는 반드시 十善戒를 외워야 하는데,⁵⁸ 보살계의 주요 내용은 바로 십선계를 지키는 것이다.⁵⁹ 十善戒란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惡口, 不兩舌, 不綺語, 不貪慾, 不瞋恚, 不邪見 등으로,⁶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不殺生이다. 문선제는 보살계를 받은 후 바로 불살생과 관련해 斷肉禁酒, 매의 방사, 관에서 설치한 어망의 제거, 도살 금지, 官의 제사에서 육류 음식을 제거할 것 등의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⁶¹

문선제의 행적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법상에게 풀어헤친 자신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한 일로서,⁶² 이는 定光佛本生談을 모방한 것이다. 연등불본생담으로도 불리는 정

⁵⁶ “魏歷既革 禪位大帝 文宣登極 敬奉逾深. 天保元年八月巡幸此山 禮謁法師 進受菩薩戒 布髮於地 令師踐之 因以爲大統.” 李裕群, 앞의 논문, p.440의 도3-2 〈大唐鄴縣修定寺傳記碑〉 뒷면의 탁본. 한편 『廣弘明集』 卷4, 「廢李老道法詔」에도 문선제가 법상에게 계를 받았음을 수록하고 있다. T52, No.2103, p.113中.

⁵⁷ 『續高僧傳』 卷16, 「僧稠傳」, T50, No.2060, p.554中. 한편 문선제의 보살계 수계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는 『續高僧傳』과 『辯正論』 등 문헌자료뿐이었다. 그러나 상술한 비문자료를 통해 天保 2년 이전인 天保 원년에 이미 보살계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隋書』 卷25 「刑法志」에는 문선제가 佛戒를 받았다고 적고 있는데, 그 연대에 대해 諏訪義純은 天保 6년(555)으로 추정하고 있다. 諏訪義純, 앞의 책, pp.236-237. 이 불계는 보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문선제는 보살계를 세 번 이상 받은 셈이 된다. 또한 『續高僧傳』 「僧達傳」에는 문선제가 승달을 특별히 예우했으며 그에게 6번 十善戒에 귀의해 숭상했다고 적었다. T50, No.2060, p.553上. 보살계의 주요 내용은 십선계를 지키는 것이었으므로 이 또한 보살계에 귀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수 문제도 보살계를 두 번 이상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辯正論』 卷3과 『集古今佛道論衡』을 참조. T52, No.2110, p.509上; T52, No.2104, p.379中.

⁵⁸ T24, No.1484, p.1004中.

⁵⁹ 십선과 윤왕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여, 북위 말 낙양에서 번역된 『大薩遮尼乾子所說經』은 호법왕인 윤왕의 중요한 일로 십선을 들고 있다. T9, No.272, p.330中. 시기는 약간 늦지만 수대 釋彥琮의 「福田論」, 초당 釋明樂의 「決對傳奕廢佛法僧事并表」, 『辯正論』 卷4 등에서도 윤왕과 십선의 밀접한 관계를 논하고 있어, 이런 관념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廣弘明集』 卷25, T52, No.2103, p.282中; 『廣弘明集』 卷12, T52, No.2103, p.173中; T52, No.2110, p.513下.

⁶⁰ 『望月佛敎大辭典』 第3卷(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년 개정1판), pp.2282-2283.

⁶¹ “天保二年…因從受菩薩戒法 斷酒禁肉放捨鷹鷄去官毘漁鬱成仁國 又斷天下屠殺 月六年三敎民齋戒 官園私菜葷辛悉除.” 『續高僧傳』 卷16, 「僧稠傳」, T50, No.2060, p.554中; 『續高僧傳』 卷8, 「法上傳」, T50, No.2060, p.485中; 『辯正論』 卷3, T52, No.2110, p.507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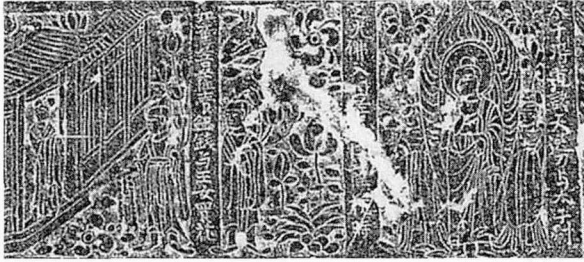
표 1 정광불본생담 수록 경전

불전	찬자/역자	고사의 주인공	布髮 고사	칠보 언금	출전
『修行本起經』	[後漢]竺大力, 康孟詳 공역	錠光佛/儒童菩薩	○	○	T3, pp.461-463
『中本起經』	[後漢]曇果, 康孟詳 공역	定光佛 이름만 간단히 언급	×	×	T4, p.147下
『異出菩薩本起經』	[西晉]聶道眞	題和竭羅佛/摩納	○	×	T3, p.617中下
『太子瑞應本起經』	[吳]支謙	定光佛/儒童菩薩	○	○	T3, pp.472-473
『六度集經』	[吳]康僧會	定光如來/儒童	○	×	T3, pp.47-48
『增一阿含經』	[東晉]瞿曇僧伽提婆	定光如來/超術梵志	○	×	T2, pp.597-599
『大法鼓經』	[宋]求那跋陀羅	定光如來/地自在	×	×	T9, p.294中
『過去現在因果經』	[宋]求那跋陀羅	普光如來/善慧仙人	○	○	T3, pp.621-623
『佛本行經』	[宋]寶雲	定光佛/善思	○	×	T4, pp.92-93
『四分律』	[姚秦]竺佛念, 佛陀耶舍 공역	定光如來/摩納	○	×	T22, pp.782-785
『薩婆多毘尼毘婆沙經』	失譯人名, 附秦錄	然燈佛/儒童菩薩	○	×	T23, p.532中
『僧伽吒經』	[東魏]月婆首那	然燈如來/彌伽	×	×	T13, p.966
『經律異相』	[梁]寶唱 撰	定光如來/超術梵志(摩納)	○	×	T53, pp.210-211
『佛本行集經』	[隋]闍那崛多	然燈佛/摩那婆	○	×	T3, pp.667-669

정광불본생담은, 석가가 전생에 유동보살이었을 때 불도를 구하고자 과거여래인 정광불에게 꽃을 사서 공양하고, 또한 머리를 풀어 정광불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게 한 후 정광불로부터 먼 미래세에 석가불이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 내용으로서, 북조의 중원 북부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다.⁶³

⁶² 이와 관련된 기록은 상술한 玄奘의 비문 이외에 『續高僧傳』 「法上傳」과 『辯正論』 卷3등에도 출현한다. T50, No.2060, p.485中; T52, No.2110, p.507下.

⁶³ 현존하는 정광불본생담 관련 조상에는 북위 皇興 5년(471)조상과 북위 말기 洛陽 平等寺 조상, 稷山の 서위 大統 6년(540) 조상, 河南博物院 소장 武定 원년 조상, 북제 河清 2년(563) 思愍조상과 武平 5년(574)의 수옥사 서굴 후벽 조상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靜杰의 세 편의 논문, 「造像碑佛本生本行故事雕刻」, 『故宮博物院院刊』 1996年 第4期, pp.66-83; 「定光佛授記本生圖考補」, 『故宮博物院院刊』 2001年 第2期, pp.67-72; 「北朝時期定光佛授記本生圖像的兩種造型」, 『藝術與科學』 卷5(2007, 北京: 清華大學), pp.113-130 등을 참조.



도 15 武定 원년(543) 조상의 뒷면 부분
 (『中國畫像石全集』 8 石刻畫像,
 도101)

많은 한역불전이 정광불본생담을 수록하고 있는데 표 1 참조, 고사의 주인공 이름과 줄거리의 장단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조상기 대부분은 '定光佛'로 적었으며,⁶⁴ 보살의 이름은 河南博物院 소장 동위 武定 원년(543) 조상과 도 15, 武平 3년(572) 「董洪達造像記」에서 보듯 '如童', 즉 儒童으로 알려졌다.⁶⁵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 이 본생담의 도상에 영향을 준 불전은 『修行本起經』, 『太子瑞應本起經』, 『六度集經』 등 3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학자 李靜杰는 상술한 조상들의 분석을 통해 『太子瑞應本起經』이 당시 정광불본생담 조상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⁶⁶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太子瑞應本起經』에서는 정광불의 授記뿐 아니라, 유동이 석가가 되기 전에 轉輪聖王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점이다. 즉 유동보살은 열반 후, 석가로 탄생하기 전에 天에 태어났다가 다시 수명이 다하면 지상에 태어나기를 각각 36번 반복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天에서는 天帝로 지상에서는 聖主, 즉 轉輪聖王의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轉輪聖王으로 나타날 때 轉輪聖王의 상징물인 칠보가 함께 출현한다고 서술하고 있다.⁶⁷

⁶⁴ 武定 원년 조상의 “定光佛入國(菩薩)花時”, “如童菩薩寶銀錢與王女買花”(『中國畫像石全集』 8 石刻畫像, 濟南: 山東美術出版社, 鄭州: 河南美術出版社, 2000, 도101), 평등사 조상의 “定(光)佛時”, 大統 6년 조상의 “此時定光佛教化三小兒補施 皆得須陀洹道”, 思愍조상의 “定光佛主 三童子主”(이상 李靜杰, 앞의 논문, 1996, p.69), 수육사 서굴 후벽의 “敬造定光佛并三童子” 등의 제기가 남아 있다. 邯鄲市文物保管所, 「邯鄲鼓山水浴寺石窟調查報告」, 『文物』, 1987年 第4期, p.14의 도25. 如童의 '如'와 유동의 '儒'는 중국어 발음이 모두 'ru'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당시에 동일한 의미로 새겨졌을 것이다. 남북조시대 조상 명문에는 이처럼 발음이 같은 한자어들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경우가 다수 출현한다.

⁶⁵ 『全北齊文·全後周文』, 『全北齊文』 권9, pp.106-107.

⁶⁶ 李靜杰, 앞의 논문(1996), pp.80-81. 이 경전은 북조뿐 아니라 남조에서도 널리 유포됐던 것으로 보인다. 즉 양의 蕭綱은 「馬寶頌」에서 아버지 양 무제를 찬양하며 그를 轉輪聖王에 비기고 있는데, 바로 이 경전을 인용했다. [宋]李昉 等編, 『文苑英華』 卷778(北京: 中華書局, 2003年 第5印), pp.4105-4106.

⁶⁷ T3, No.185, p.473中.

그러므로 우리는 문선제가 평소 범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즉 문선제가 유동보살을 흉내 낸 것은 그가 장차 성불할 것이란 점과, 현재의 자신은 또한 바로 부처에게서 수기를 받고 전륜성왕으로서 태어나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⁶⁸

지금까지 문선제의 여러 가지 불교적 통치 행위를 통해 그가 불교적 성왕, 즉 전륜성왕으로서 복제를 통치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 기록과 조상기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 武德 9년(626)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辯正論』에서 法琳(572-640)은 “문선제가 憲章覺者에게 輪王의 존엄을 가버어 했다”라고, 문선제를 윤왕에 비유했다.⁶⁹ 복제인들 또한 고씨 황실을 전륜성왕의 후예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제의 권신이며 고관이었던 唐邕은 북향당석굴 남동 외벽에 刻經을 하고 이를 기념해 세운 비문에 “대제의 임금의 가문이 천제의 존엄함을 물려받았고, 대대로 輪王의 귀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적었다.⁷⁰ 또한 天保 8년(557) 「定國寺塔銘碑文」에서는 趙郡王 高叡를 刹帝利種으로 기록했는데,⁷¹ 찰제리종은 바로 찰리종, 즉 轉輪王種이다. 그러므로 현무황제 고환의 동생 高琛의 아들인 고예가 당시에 찰제리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고씨 황제가 윤왕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⁷²

이 비명은 또한 전륜성왕 칠보의 하나인 금륜보로써 복제 황실을 찬양하고 있다.⁷³ 칠보는 金輪寶, 馬寶, 象寶, 珠寶, 女寶, 主藏寶, 主兵寶 등으로 전륜성왕과 함께 출현하는 윤왕의 상징물이다. 그 가운데 ‘전륜성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륜보가 가장 중시되었다. 복제인들은 바로 이 금륜보를 이용하여 복제 황실을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있다.

⁶⁸ 부처에게 부촉을 받는 것은 전륜성왕의 전제조건이었다. 아육왕은 석가모니로부터 전륜성왕으로서 염부제를 다스릴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으며, 아육왕을 모방해 중국에 불사리탑을 세웠던 수 문제도 開皇 5년(585) 불의 부촉을 받았음을 천명하고 있다. 『辯正論』 卷3, T52, No.2110, p.509上. 그러므로 우리는 정광불본생담을 흉내 낸 문선제의 행위가 전륜성왕 통치이념 및 군권신수의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李靜杰도 정광불조상의 유행이 황제의 전륜성왕 통치이념 및 군권신수의 사상과 관련 있음을 지적하였다. 李靜杰, 앞의 논문(1996), p.81.

⁶⁹ T52, No.2110, p.507下.

⁷⁰ “大齊之君…家傳天帝之尊, 世祚輪王之貴.” 水野清一·長廣敏雄, 앞의 책, p.143의 「齊晉昌郡公唐邕刻經記」.

⁷¹ “我王夙植善根 □□利種 以爲靈光之殿 遠謝微妙之臺 黼黻之衣 誠乘精進之鎧 故以先覺而寤浚覺 後□而助先燈.” [清]陸增祥 撰, 『八瓊室金石補正』 卷20, 앞의 책, pp.196-198. “利種”의 앞에는 파손이 심해 글자를 알 수 없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刹帝利種’이 분명하다.

⁷² 高叡는 현무 황제와 문양 황제 高洋을 위해 天保 7년(556) 白玉 釋迦像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劉建華, 「北齊趙郡王高叡造像及相關文物遺存」, 『文物』 1999年 第8期, pp.66-77을 참조.

⁷³ “大齊之馭九 有累聖重規 羲軒之流 炎昊之輩 出東震 握北升 擊玉鼓 轉金輪 前疑後承 左賢右戚 數當於天運 名上於河圖 入作股肱 出爲藩屏.” [清]陸增祥 撰, 『八瓊室金石補正』 卷20, 앞의 책, pp.196-198.

문선제 선양 당시 선위조서를 썼던 위수는 太寧 2년(562) 彭城王 高澄가 彭城寺를 중수한 것을 기념하여 쓴 『彭城寺碑文』에서 황가를 金輪飛行皇帝에 관련시키고 있다.⁷⁴ 이런 경향은 고관뿐 아니라 일반 촌민까지 확대되어, 并州(지금의 太原) 樂平郡 石艾縣 安鹿交村 읍사 72인은 皇建 2년(561) 조상을 만들며 “황제 폐하께서 금륜을 맞아 황실의 공이 멀리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하였다.⁷⁵ 또한 河南省 偃師에서 발견된 武平 7년(576) 『楊安都造碑像記』에서는 황실이 영원히 이어져, 금륜이 세상을 비쳐주기를 기원하고 있다.⁷⁶

미륵하생경전에 의하면 전륜성왕이 통치하는 곳은 바로 미륵이 하생한 국토이다. 그러므로 북제 황실의 전륜성왕 통치이념 아래, 당시 북제에는 상층계급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미륵하생신앙이 유행했다. 즉 교각미륵상이 줄어들고 하생한 미륵을 나타내는 의좌형과 반가좌의 미륵불이 다수 만들어졌다.⁷⁷ 그리고 절가부좌 미륵도 만들어졌는데, 洛陽 平等寺 유지에서 발견된 조상비 가운데 天統 3년(567) 『韓永義造像碑』에는 미륵하생신앙을 나타낸 명문과 함께 절가부좌 미륵이 부조되어 있다.⁷⁸ 河北 曲陽 출토 백대리석상 가운데는 天保 2년(551)조상, 乾明 원년(560)보살상, 河清 2년(563)조상 등에서 보듯 “미륵하생상”의 명문을 가진 상들이 만들어졌다.⁷⁹ 한편 미륵금상 1구를 제작하기도 한 북제 권신 唐邕은 북향당석굴 남동 외벽에 『彌勒下生成佛經』을 새겼으며,⁸⁰ 顏之推도 『顏氏家訓』 『歸心』 篇에서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禳法之國을 언급하여,⁸¹ 당시 미륵하생경전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4 “茲願力上奉皇家世祀共圓□□久隆基興 方地齊固 乘寶殿以飛空 駕金輪□磅礪珠囊 不委玉鏡恒輝 蠢蠢□生咸歸□□覺.” (民國)賈恩紘纂, 『定縣志』 卷18,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2, pp.439-441.

75 “友顛皇帝陛下金輪應逆 聖神凝遠.” 山西省古建築保護研究所·北京大學考古系石窟調查組, 『山西平定開河寺石窟』, 『文物』 1997年 제1期, p.78. 이 발원문은 『山右石刻叢編』 卷2에도 수록돼 있다.

76 “是以都邑主楊安都合邑五十人等·敬造碑像一區 備營元闕今得 并就此以微因 仰資帝祚永延 金輪耀世·” (清)武億撰, 『偃師金石遺文記』,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2, p.499.

77 남향당석굴 제2굴 중심주 좌벽 및 굴 후벽에는 칠불과 함께 반가좌의 상이 마지막으로 부조돼 반가좌의 상이 미륵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가좌 미륵은 또한 2굴 전벽 상부 부조의 오른쪽과 河北 藁城縣에서 출토된 하청원년(562)명 백대리석 쌍“미륵상”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의좌형 미륵은 고환의 14번째 아들인 高潤이 武平 3년 세운 『馮翊王修平等寺碑』 碑首와 고환의 부인인 婁太后的 조가 婁定遠이 青州에 세운 『臨淮王像碑』 비수에서 나타난다.

78 李獻奇, 『北齊洛陽平等寺造像碑』, 『中原文物』 1985年 第4期, pp.89-97.

79 馮賀軍, 『曲陽白石造像研究』(北京: 紫禁城出版社, 2006), 附錄3의 도69, 101, 111. 이 가운데 하청2년명 조상의 “彌勒下山玉像”의 “下山”은 “下生”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常山真石志』 권2에는 “造彌勒下生像殘記”가 실려 있으나 “敬造彌勒下生像” 명문 이외에 기년이 없어 구체적인 연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편자 沈濤는 다른 명문 등을 참조해 이 상을 북제 趙郡王의 신묘가 만든 작품으로 추정했다. 『先秦秦漢魏晉南北朝石刻文獻全編』 2, p.492.

80 『辯正論』 卷4, T52, No.2110, p.516上中.

IV. 탑형굴의 鄴城 조영 배경

북동이 개착된 鼓山은 원래 상서로운 땅으로서, 신이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다. 『續高僧傳』에는 이 석굴사에서 일어난 신이한 일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 많은데, 「圓通傳」에는 고산, 즉 석굴사 동쪽에 위치한 신비한 죽림사를 방문한 일을 적고 그곳 대화상의 용모가 범승과 같았는데 그는 바로 賓頭盧尊者일 것이라는 후대인의 평가를 적고 있다. 이는 곧 고산에 석가모니 재세 당시 그의 제자였던 賓頭盧와 그를 따르던 나한들이 거주하는 사찰이 있다는 당시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道宣은 이어 唐代에도 신기한 종소리와 범패 소리가 들려 이곳에 신궁선사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언급하고 있어,⁸² 고산이 여전히 신성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明芬傳」과 「道豐傳」에도 고산의 죽림사와 그 신성한 사적에 대한 언급이 있다.⁸³ 그리고 상술한 「常樂寺重修三世佛殿碑文」에도 문선제가 고산에서 수백의 성중이 출현하는 곳을 보고 이 곳에 세 개의 석굴을 개착했다는 유사한 기록이 있다. 이는 「圓通傳」에서 언급한 죽림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들로 미뤄 당시 고산이 석가모니와 직접 관계가 있는 종교적 성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산에 북동 등 석굴을 개착한 것은 바로 이 곳이 종교적 성지였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석굴이 문선제의 정치적 기념비로 건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산의 위치 선정에는 종교적 배경 외에 정치적 배경 또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북제 고씨 황실의 근거지였던 山西省 太原에 조영된 天龍山石窟에는 탑형굴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⁸⁴

문선제의 아버지 고환은 업성 천도 후 그들의 막부가 있던 晉陽(太原)에서 동위 정권을 원격 조정했는데, 북제에 들어서도 근거지는 여전히 이 곳에 두었다. 북제 황제들의 즉위와 죽음이 대부분 晉陽宮에서 이뤄졌으며(문선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왕조 개창 후에도

⁸¹ 顏之推 著·王利器 撰, 『顏氏家訓集解』(北京: 中華書局, 1993), p.391.

⁸² T50, No.2060, pp.647下-658下. 『集神州三寶感通錄』卷下에도 「圓通傳」과 유사한 내용의 고사가 실려 있으나, 고사가 발생한 시기는 북제 초이며, 승려도 다만 '異僧'으로 기록돼 있다. T52, No.2106, p.424上中.

⁸³ T50, No.2060, p.669下; T50, No.2060, p.647下.

⁸⁴ 천룡산석굴의 동위굴인 2굴과 3굴은 고환의 개착으로 알려졌으며, 북제굴은 1굴, 10굴, 16굴 등이 현존한다. 李裕群·李剛 編著, 『天龍山石窟』(北京: 科學出版社, 2003), p.203.

병권을 여전히 이 지역에 집중시킨 채 업성과 진양을 오가며 복제를 통치했다. 이처럼 晉陽은 고씨 황실의 '霸業 所在'로서 중시되어, 문선제는 재위 10년간 무려 16회에 걸쳐 진양에 갔으며, 진양 체재 기간 또한 업성 체재와 비슷할 정도로 진양을 중시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 상서인 탐형굴을 왜 자신의 근거지에는 만들지 않고 업성 지역에 개착한 것일까.

이는 당시의 정치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34년 고훈이 업성 천도를 단행할 때 북위 낙양의 40만 호가 모두 이곳에 이주했는데,⁸⁵ 이때 낙양의 백성뿐 아니라 북위 황실 세력들이 모두 업성으로 옮겨왔다. 즉 진양이 고씨 황실 지지자들의 집결지였다면 업성은 북위의 군주권력과 낙양의 구세력이 모여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다. 고훈이 업성에 머무르지 않고 진양에서 동위 조정을 원격 조정했던 것도 이런 역학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⁸⁶

게다가 북제 정권 성립 이전 고훈은 원칙적으로 북위 황제의 신하였고, 그런 점에서 여러 장수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문선제가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황제를 비롯한 북위의 구세력뿐 아니라 여러 장수들, 즉 당시 훈귀라 불리는 신세력들의 반대 또한 물리쳐야만 했다.⁸⁷ 이 과정에서 문선제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막부가 있는, 고씨 일족의 세력 근거지였던 진양보다 자신의 반대세력과 낙양에서 이주해온 북위 舊民들의 거주지였던 도성 업성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줄 기념비물을 구축하고자 했을 것이다.⁸⁸

이런 정황들로 미뤄 북동의 조영은 종교적 성지로 널리 알려진 고산 땅에 아육왕탑을 건립함으로써 북위 황실세력과 새로 등장한 훈귀세력들, 그리고 북위의 옛 백성들에게 문선제 자신이 전륜성왕으로서 북제를 통치하도록 부촉받았음을 드러내 보이는 정치적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⁸⁵ 『北齊書』 卷2, 「帝紀·神武」, p.18. 반면 북위 효무제는 고훈을 피해 낙양에서 장안의宇文氏 곁으로 도망쳤는데(534년), 이때 그를 따른 근위병은 1만도 되지 않았다. 『隋書』 卷24, 「食貨志」, p.679.

⁸⁶ 고훈이 당시 수도를 그의 근거지인 진양이 아닌 업성으로 천도한 이유에 대해, 김한규는 당시 북위의 군주권력이 철저하게 공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양과 진양의 중간지점인 제3의 공간 업성으로 천도했다고 보았다. 金翰奎, 『古代東亞細亞 幕府體制研究』(一潮閣, 1997), p.105.

⁸⁷ 임대희·이주현·이윤화 외 옮김, 『세미나 위진남북조史』(서경문화사, 2005), pp.302-303.

⁸⁸ 동위·북제 집권세력에 대한 분석은 毛漢光, 「北魏東魏北齊之核心集團與核心區」,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集刊』 57(臺北, 1986), pp.241-319 참조.

V. 결론

북제 수도 업성 지역에 개착된 북향당석굴 북동은 북제 초대 황제인 문선제가 왕조 개창 초기에 조영한 대형 석굴사원으로서, 그 규모와 장식의 화려함 등으로 보아 단순한 예배공간이 아닌 정치적 기념비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석굴의 외형적 특징인 탑형굴을 중심으로, 이런 특징의 출현 배경을 석굴의 조영자와 관련해 고찰했다.

먼저 당시의 조상기와 문헌 등을 중심으로 북발형 지붕을 한 단층 방형탑이 무엇으로 예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조시대에는 이런 탑이 아육왕탑으로 널리 예배되었으며, 이것은 아육왕탑을 예배하면 많은 재액을 면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육왕탑은 불교적 상서로 신앙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종교적 상서는 종종 정치적 상서로 이용되었으며, 아육왕탑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통치자의 덕을 미화하는 정치적 상서로 이용됐다. 이는 아육왕이 석가모니에게 부촉을 받은 인도의 전륜성왕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아육왕탑이 출현한 곳은 불교적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불국토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梁 무제, 隋 무제 등도 이런 관념을 이용해 자신이 전륜성왕임을 드러냈다.

북제 문선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살계 수계와 그에 이어지는 斷肉禁酒令, 조류와 어류의 방사, 定光佛本生談 흉내 등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행동은 그가 아육왕의 행적을 강하게 모방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당시의 조상 명문과 唐代 기록들도 문선제를 비롯한 북제 황제를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전륜성왕 통치이념이 조형적으로 표현된 것이 다름 아닌 '불교적 상서' 탑형굴이었을 것이다. 즉 문선제는 석굴의 외관을 아육왕탑 형식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신이 통치하는 국토에 아육왕탑이 출현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북제시대 초기에 초대 황제인 문선제에 의해 조영된 북동은 그 외형적 특징으로 보아 전륜성왕 사상이 투영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조형 이념은 석굴 내 조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동 세 벽에 커다랗게 새겨진 16개의 탑형 감과 중심주 상부에 개착한 16개의 소형 불감, 포의박대식 복장을 한 반가좌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도상들을 해석할 만한 경전적, 또는 다른 문헌적 근거가 분명치 않아,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주제어(key words) — 北響堂石窟 北洞(The North Cave at Northern Xiangtangshan), 鄴城(The Capital City Ye),

轉輪聖王(*Cakravartin*), 北齊(Northern Qi Dynasty), 文宣帝(Wenxuandi), 塔形窟(Stupa-shaped Cave), 阿育王塔
(Ashokan Stupa)

■ 투고일 2007년 6월 27일 | 심사일 2007년 7월 18일 | 심사완료일 2007년 8월 21일 ■

국문초록

北響堂石窟 北洞은 중국 河北省 邯鄲市 峰峰礦區의 鼓山에 위치한 대형 석굴사원이다. 이 석굴은 북제 초기, 초대 황제인 文宣帝에 의해 수도 鄴城 지역에 조영되었는데, 그 규모와 화려한 장엄의장 등으로 미뤄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닌 황실의 정치적 기념비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동에는 중국의 기타 지역 석굴사원에서는 볼 수 없는 조형적 특징이 출현한다. 즉 석굴 외관이 북발형 지붕을 가진 방형 단층탑 형식의 '塔形窟'이라는 점이다. 본고는 이런 조형적 특징의 의미와 그 출현 배경을 석굴의 조영자인 문선제와 관련해 분석, 고찰했다.

먼저 당시의 조상기와 문헌 등을 중심으로 북발형 지붕을 한 방형의 단층탑이 무엇으로 예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조시대에는 이런 탑이 阿育王塔으로 널리 예배되었으며, 이것은 아육왕탑을 예배하면 많은 재액을 떨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육왕탑은 불교적 상서로 신앙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종교적 상서는 종종 정치적 상서로 이용되었으며, 아육왕탑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통치자의 덕을 미화하는 정치적 상서로 이용됐다. 이는 아육왕이 석가모니에게 咐囑을 받은 인도의 전륜성왕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아육왕탑이 출현한 곳은 불교적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불국토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梁 무제, 隋 문제 등도 이런 관념을 충분히 이용해 자신이 전륜성왕임을 드러냈다.

북제 문선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菩薩戒 受戒와 그에 이어지는 斷肉禁酒令, 조류와 어류의 방사에서 보듯 아육왕의 행적을 강하게 모방했으며, 또한 자주 定光佛本生談을 흉내 내어 자신이 전륜성왕으로서 태어났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다. 아울러 당시의 조상 명문과 唐代 기록들도 문선제를 비롯한 북제 황제를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있어 문선제가 당시 전륜성왕으로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전륜성왕 통치이념이 조형적으로 표현된 것이 다름 아닌 '불교적 상서' 탑형굴의 조영이었을 것이다. 즉 문선제는 이를 통해 자신이 통치하는 국토에 아육왕탑이 출현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탑형굴은 북제에서도 업성 지역에만 출현할 뿐, 북제 황실의 근거지로 실질적 통치 중심지였던 太原의 天龍山石窟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 이는 문선제의 아버지 高歡에 의해 낙양으로부터 강제 이주된, 북위 황실세력을 포함한 낙양의 40만 호가 업성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북위의 선양을 받아 북제를 개창한 문선제는 그들에게 위와 같은 불교적 상서의 출현을 통해 자신의 왕조 창업을 정당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Abstract

The Cakravartin Symbolism in the North Cave at Northern Xiangtangshan

So Hyunsook*

The North Cave at Northern Xiangtangshan is a site of large scale built by Wenxuandi, the first emperor of Northern Qi (550-577). It is situated at Gushan in the southern part of present Hebei province not far from Ye, the capital of Northern Qi. Judging from the cave's scale and decorative motifs, we can see that the North Cave is not a site purely for religious worship, but a monument of political propaganda of the Northern Qi royalty.

The North Cave's unique feature is a single-story square stupa with a domed roof. It differs from other Buddhist caves in contemporary China: most notably, it is a stupa-shaped cave. Examining the appearance of the North Cave, this paper probes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cave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its construction, and attempts to st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rons and the cave's shape with a focus on Emperor Wenxuan.

Through the analysis on contemporary literary sources and inscriptions, this paper first explores how the people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understood the single-story stupa with a domed roof. The single-story stupa was venerated as an Asokan stupa, and this conception related to the idea that the worship of an Asokan stupa promised the annihilation of

*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calamities and salvation from hells; thus, the stupa was an auspicious symbol.

In ancient China, religious auspicious signs were frequently used for political propaganda eulogizing the lofty virtue of a ruler. The worship of an Asokan stupa was precisely the case. This directly relates to that Asoka received entrustment from Sakyamuni Buddha and ruled India as a *cakravartin*. Based on this, there was a prevalent belief that the place where an Asokan stupa was discovered was a buddhaheld ruled by an ideal Buddhist ruler, *cakravartin*. Both Emperor Wu of Liang and Emperor Wen of Sui attempted to declare himself as a *cakravartin* on the basis of the belief.

Emperor Wenxuan was no exception. He constantly tried to imitate virtuous acts of Asoka such as taking Bodhisattva precepts, prohibiting the consumption of meat and alcohol, and setting free captured birds and fish. He also conducted reenactment of the Dipankara-jataka to show he was a reincarnation of the *cakravartin*. Inscriptions on images of the Northern Qi and historical sources of Tang often refer to him as a *cakravartin*. The Asokan stupa is the visual embodiment of such conception.

Stupa-shaped caves are found only in the capital city Ye, not in the Tianlongshan caves, which was the power base of the Northern Qi royalty. This may be connected to the fact that Ye had among its residents as many as 400,000 households moved from Loyang, the capital of the Northern Wei, which include the Wei royalty. The construction of the Asoka stupa could have been an attempt of the Northern Qi emperor to justifying his rule achieved through the abdication of the throne by the Eastern Wei emperor.